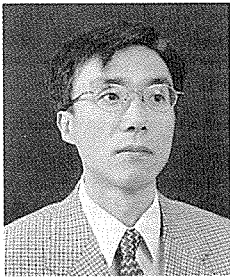


# IMF와 부패공화국

이번 서울대 치대교수의 구속사건으로 교수임용에 돈을 주어야 한다는게 공지의 사실로 드러났다. 필자가 들은 얘기로 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한 교수지망생이 어느 대학의 제의를 받고 임용신청을 냈으나 2천만원을 내라는 총무처장의 요구를 못지켜 교수임용의 문턱에서 좌절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또 법조계에서 일어난 비리도 맥을 같이한다. 어딜가나 성한 곳이 없고 공정한 경쟁의 룰이 지켜지는 곳이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부패공화국인가



孫光雲  
(변호사)

**나**는 1995년 2월부터 1년6개월 동안 미국의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로스쿨에 머무른 적이 있다. 그때의 경험이다. 그 곳에는 수십개의 한국인 교회가 있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는 하버드와 MIT가 있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유독 젊은 유학생들이 많았다. 대부분 그들은 화학, 생물, 천문학, 산업공학, 제어 등 자연공학쪽을 전공하였다. 특히 학위는 중, 서부 등 다른 곳에서 하고 이른바 포스트닥터(약칭 포닥)코스로 하버드대 병원 등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 내가 친하게 지

냈던 A의 경우 그는 코넬에서 화학 분야를 공부하고 학위를 했다. 처와 어린 두자녀를 둔 가장이다. 그가 포닥으로 하버드 메디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임금은 월 2천달러 수준이다. 집세, 의료보험료, 기타 경비를 제하면 한달을 빠듯하게 살아가는 수준이다.

### 한번 교수면 영원한 교수

그의 유일한 희망은 대학 교수이다. 미국내 우수한 자연과학 잡지에 여러번 논문을 낸 바도 있다. 지도 교수로부터 인정도 받아 남들과 달리 빠르게 승진되어 인스트럭터(Instructor)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 그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가 되는게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미국에서 지원서를 보내지만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맛보고 있다. 최근에도 여러 군데 보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유학생들의 가족이 하버드, MIT가 있는 케임브리지는 물론 서부 등 미국 전역에 수천명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그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구실에서 산다. 일요일에 교회 잠깐 갔다 오는 게 고작이다. 그런 그들의 희망은 대한민국에서 교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서의 교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번 교수면 영원한 교수이다.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충원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교수가 되는게 더욱 바늘구멍이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교수들의 나라이다. 누가 타타하지도 않고 실력 없다고 배척당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미국의 로펌소속 변호사나 교수들은 유독 이혼율이 높다고 한다. 실력이나 논문실적이 없으면 언제든 지 도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새로운 연구에 진력하다 보면 가정이 희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나는 솔직히 미국 교수들의 생활을 보고 “미국 교수 그냥 하라고 해도 안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심지어 노벨상을 탄 교수도 예외는 아니다. 한 때는 60여명의 사무실을 갖고 있던 교수도 연구실적이 없거나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펀드레이징(Fund Raising)이 없으면 갑자기 연구실이 없어지는게 미국의 풍토라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는거다. 그런데 기초과학이 취약한 한국의 풍토를 개선하고 과학입국의 초석이 되겠다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수많은 A들에게 최근 한국소식은 절망 그 자체이다. 최근의 서울대 치대 교수구속사건이 그것이다. 교수 임용에 돈이 꼭 필요하다는게 공

지(公知)의 사실이였지만 현실로 드러났다. 그것도 한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는 국립대인 서울대에서 일어났다는게 더 큰 충격이었다. ‘서울대가 그러면 다른 대학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나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 정서였지만 새삼스레 놀랍기 그지없다. 실력, 연구논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지도교수와의 친소(親疎) 관계가 교수되는 지름길인 것이다. 수많은 과학기술계통의 고급인력이 제때 실력 발휘도 하지 못한 채 도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우리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 2천만원에 임용 좌절

최근에 내가 들은 얘기를 하나 더 소개한다. B는 7년 전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땀다. 그리고 그 해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제의를 받고 임용 신청을 하여 채용이 확정될 즈음이었다. 그런 어느날 총무처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통상 교무처장이 통지하여 새 학기 일정을 잡는 것을 상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는 총무처장의 전화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결국 그의 생각대로 “이 다음에 상의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는 말에 눈치를 채고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5천만원이 정액인데 깎아서 2천만원만 내라”는게 요지였다. 결국 그는 돈을 내지 않아 교수임용의 문턱에서 좌절을 맞보았다. 한학기 뒤 그의 선배가 같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깊은 비애를 느꼈다고 한다. 7년 전의 공식적인 요구금액이 5천만원 정도였으니 현재는 얼마인지 알고 남음

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서울대 치대 교수들이 받은 돈은 통상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 우리만 “억울하다”는 변명도 일리가 있을법하다. 최근 우리 법조계에서 일어난 비리문제도 맥을 같이한다. 의정부의 이순호변호사는 “왜 나만 그러느냐,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경찰서, 검찰, 법원의 직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선임료의 2~30%의 알선료를 주는게 수십년간 법조계에 통용된 일반원칙이다.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그는 남양주경찰서 사건의 7~80%를 싹쓸이 했다는 것이다. 알선료 수수에 따른 선임료의 부담은 당연히 법률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변호사들이 가장 존경받고 유능한 법조인으로 존경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단언하지만 대한민국은 형식상 민주공화국이지만 실질은 부패공화국이다. 어느 곳이나 성한 곳이 없다. 공정한 경쟁의 룰이 지켜지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 부리 못뽑는 총체적 부정부패

어디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사회, 불안전의 사회가 우리 한국의 현 주소이다. 이번의 IMF 신탁통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원은 단연코 총체적인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정치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경제와 재벌, 금융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된 당연한 업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

한 상태에서 과학기술의 입국을 꿈꾸는 새 정부의 장래도 밝지만은 않다. 일단 소프트웨어를 다룰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충전이 실력위주로 공평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슈퍼마켓이나 전자제품 시장에 가보자. ‘메이드 인 코리아’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저가(低價)는 중국제이고 고가(高價)는 일제, 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작년 미국의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100대 브랜드’ 품목에 한국제가 전무했던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100대 브랜드 품목의 기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다루는 주무부서를 보아도 그렇다. 폭넓은 연구와 경험을 지닌 기술인력은 출세(?) 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대, 경영대 등을 졸업한 비전공자가 기술자 등보다 대접받고 출세할 수 있는 곳도 우리나라 뿐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새 정부가 모처럼 ‘과학입국’을 주창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과감하게 과학기술의 발전을 모색해 보겠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수십년간 고착된 부조리의 형태를 과감히 개선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다. 미국의 A, 한국의 B가 실력만으로 학교나 재단들에 줄 돈 걱정하지 않고 한국의 교수가 될 날을 꿈꾸어 본다. 그럴 때 몇년 뒤에는 미국 소비자가 뽑은 100대 브랜드 중에 적어도 몇 개는 낄 수 있으리라. 과학입국은 원칙을 지키는 풍토에서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⑤7